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경제·민생 회복 주력”

“대기업 유치 세일즈 적극 나설 것”

“도민 삶에 도움 된다면
진보·보수 가리지 않아
전북도 인수위원회
실용성 바탕으로 임명
도청 조직개편에도 속도”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회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저는 아주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도민들이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채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시 3관왕이자 국회 재선 의원 출신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전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일 전북도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 선정과 관련 “철저히 실용주의를 택했다”라며 “저 자신부터가 정책이 이념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다. 특히 도정에 있어서는 모든 목표는 도움이 된 삶의 질의 향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권 진보권 실용주의에 앞설 수는 없다. 도민들이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채택

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한 실용주의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인수위원장에

원장을 임명했다. 미완성된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냄과 동시에 지난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은성수 위

만들기 위한 금융산업 육성 등 관련 기반 다지기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또 도시공학과 기업인 출신 관광과 스포츠, 여성, 청년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인재를 영입했다.

김관영 당선인 역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정부 양 부지사가 도정 업무에 주력하고 도지사는 기업 유치 등에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도청 조직개편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맡길 경우 시간만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속도감있는 개편에 나서 도의회 등과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인수위에 도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참여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무관 등 실무진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지역에서 활동이 적은 대변인(이정현) 선임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대변인 출신으로 알게 됐으며 인품과 실력 등에서 추천이 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려 한다”며 “현장을 직접 보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데 전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산업부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군산 유치

신영대 의원 “해상풍력 분야 최정상급 인재 육성 요람 될 것”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 의원(전북 군산)에 따르면 이 센터는 정부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해 에너지 산업계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8년까지 6년간 국비 60억원을 포함해 총 88억 2500만원을 투입해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분야 고급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 대표 연구기관인 군산대학교가 인력양성을 주관해 맡고



(주)삼성중공업, (주)현대스틸산업 등 10개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풍력발전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국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이 해상풍력 분야 최정상급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새민금을 풀고 있는 군산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특화된 지자체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전했다. /뉴스

김충영 익산시의원, 제9대 시의회 의장 도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익산 선거구(중앙, 평화, 인화, 마동)에서 1등으로 당선된 김충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선이라는 의정경험과 역량을 앞세워 제9대 익산시의회 의장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거에서 익산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익산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협치하고 견제하는 균형있는 의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김 의원은 자정거의원으로써 시민들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전북도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도·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15개반 81명)을 꾸려 여름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1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80개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100개소) 178곳이다. 특히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 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를 중점 점검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이

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예고

보리·밀 수확기 맞아
인근 주민 피해 민원 최소화
26일까지 합동단속반 운영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리·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불법소각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 예방 및 제재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전북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

이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6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

며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등 주요 백류 주산지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도 3개반, 시군 42개반)은 6.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계도 홍보를 실시한다.

도는 올해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및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 토양환원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농민인식 개선과 수거·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1~5월간 홍보 926건, 계도 576건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토양 환원시 20만원/ha, 그의 활용시(조사료, 축사깔개

등) 10만원/ha)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편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 감액 농민수당 지급 제외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사업의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환경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악취 민원 선제대응

익산 1~2산단 등 관리지역 대상 실태조사 나서기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잦아지는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익산시 제1산업단지·제2산업단지 등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대기질 및 사업장 오염도를 정기적(연4회)으로 조사해 효율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사지점은 총 27개소(익산 제1산단 10개소, 익산 제2산단 12개소, 우리밀 축산 5개소)로 악취관리지역별 부지경계지역, 인근(피해)지역으로 구분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조사한다. 악취배출사업장 40개소의 배출구 등에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황화합물 4종, 암모니아, 휘발성유

기화합물 7종,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총 14종이다. 피해지역의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해 풍향 풍속도 조사한다.

지난해 악취실태조사 결과 대기질 및 악취배출사업장 전 지점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연구원에서는 실태조사 외에도 악취 발생이 심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 악취민원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최정화 도 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악취 저감대책을 세우고 악취 배출원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